

歸脾湯에 대한 方劑學的 研究

박양구, 김윤경*, 윤용갑**

샘물한의원, *원광대학교 약학대학 한약학과,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방제학교실

ABSTRACT

A review on composition, action, compatibility of ingredients, clinical application of Gwibitang

Yang-Gu Park, Yun-Kyung Kim*, Young-Gab Yun**

Saem Mul Oriental Clinic, *Department of Oriental Pharmacy, Wonkwang University,
**Department of Oriental Medical Prescription, Wonkwang University

The source of Gwibitang(歸脾湯) is the book of Jesaebang(濟生方). The formulae is excluded *Angelicae gigantis radix*(當歸) and *Polygalae radix*(遠志) in the Jesaebang(濟生方). In the Guchiryuyo(口齒類要), Jeongcheryuyo(正體類要) and Gyojubuinyangbang(校註婦人良方), has been became White *Pria cocos* Wolf(白茯苓) instead of Hoelen cum Pini Radix(白茯苓), and is followed constitution of Uihagypmun(醫學入門) in the Donguibogam(東醫寶鑑). Basic formulae of Gwibitang(歸脾湯) consist of Sanjointang(酸棗仁湯), Sagunjatang(四君子湯), Hwanggitang(黃芪湯), Danggwiwohyeoltang(當歸補血湯), a kind of Jeongjihwan(定志丸類), a kind of Chongmyeongtang(聰明湯類).

To deficiency of the heart and spleen, apply Sanjointang(酸棗仁湯), a kind of Jeongjihwan(定志丸), Sagunjatang(四君子湯) and Hwanggitang(黃芪湯). To insufficiency of the spleen-gi(脾氣),

-
- 교신저자 : 윤용갑
 -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방제학교실
 - Tel : 063-850-6834 E-mail : yunyg@wonkwang.ac.kr
 - 접수 : 2007/ 10/ 18 채택 : 2007/ 12/ 19

apply Sagunjatang(四君子湯), Hwanggitang(黃芪湯) and a kind of Jeonssiigongsan(定志小丸). To deficiency of blood, apply Danggwibohyeoltang(當歸補血湯). Gwibitang(歸脾湯) is used for amnesia and severe palpitation as a result of deficiency of the heart and spleen and deficiency of both gi(氣) and blood(血).

Key word : Gwibitang, basic formulae

1. 緒 論

歸脾湯¹⁾은宋代嚴用和²⁾의《濟生方》에 최초로 등재된處方으로思慮過度로心·脾를傷함으로因한健忘怔忡을治療할目的으로立方되었다.

元代の危亦林³⁾은嚴用和의主治症以外에思慮로脾를傷하여脾가統血,攝血하지못하므로써血이妄行하여發生하는吐血,下血의치료를첨가하였다.

明代의薛己^{4),18)}는本方에遠志,當歸를加味하여驚悸盜汗,心脾作痛,嗜臥少食,大便不調,肢體重痛,月經不調,赤白帶下와思慮로脾를傷하여 발생한疾患등으로臨床活用範圍를넓혔으며,최근에이르기까지血虛發熱,胎漏,崩漏,行止腹痛,熱入血室,哺熱內熱,胎虛不安,乳癌,子懸,無月經등에광범위하게활용되고있다²⁰⁾.

현대의歸脾湯에대한연구로는검색가능한논문으로는42종이있으며,그외에학회지에수록된논문이다수있다.대표적인연구로는鄭²¹⁾의'歸脾湯의煎湯液이家兔血壓 및白鼠肝TBA值에미치는影響',李²²⁾의'歸脾湯煎湯液이睡眠時間 및鎮痛作用에미치는影響에關한實驗的研究',柳²³⁾의'歸脾湯 및備金散煎湯液이實驗動物의止血作用과摘出子宮筋에미치는影響',李

24)의'薛氏醫案에나타난歸脾湯의臨床的活用에關한考察',文²⁵⁾의'歸脾湯의抗Stress效果에대한實驗的考察',朴²⁶⁾의'歸脾湯과歸脾湯加味方の마우스의過敏反應 및免疫細胞機能에미치는影響'등이있다.

歸脾湯에있어서歸脾란心·腎·肝·肺四臟의神·志·魂·魄을조화시켜모두脾로歸元시킨다는뜻으로心藏神하여生血하고,脾藏意하여統血하는데思慮太過로因하여心脾二經이損傷되어血이歸經하지못하여發生하는疾病의治療法이歸脾이며그대표적處方이歸脾湯인것이다.특히薛氏가歸脾湯을활용한구체적인事案등을보면精神的인素因인思慮過度,鬱怒,憂思등,病因상으로七情傷이主가되며,治驗例의대다수가女性인것을보면女性이대체로男性보다정서적으로세심하고소심하여精神的素因에민감하게반응하는것을알수있다.

현대사회는문명의발달로인한사회의복잡성,다양한인간관계등여러가지요인들이身體疾患에많은영향을미치어모든疾患에다소의차이는있지만心理的,社會的인인자가관련되어지는데이러한경우의治療法이歸脾이며,그대표적인處方인歸脾湯이인간의七情傷과관련된諸症象에다양하게활용될수있다고여겨진다.

따라서東醫寶鑑⁵⁾에실려있는歸脾湯을중심으로

로 연구하여, 構成藥物의 변화와 主治변화, 構成하고 있는 處方內容을 基本方으로 분석하고, 方劑構成과 病理의 연관성, 病理와 病症의 연관성, 主治작용과 構成方劑에서 상호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歸脾湯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확실하게 확립하고 이에 대한 臨床的 활용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본 研究를 시도하였다.

II. 本 論

1. 歸脾湯의 構成과 主治症의 變化

歸脾湯은 濟生方(1253, 嚴用和)의 健忘門에 처음 수록된 處方이며, 原書는 이미 없어졌고, 현존하는 本은 淸人이 永樂大典에서 輯出한 것으로 原書의 半分量이다⁶⁾.

構成내용은 酸棗仁 龍眼肉 黃芪 白朮 茯苓 (1.0兩) 人蔘 木香 (0.5兩) 甘草 (2.5錢) 生薑五 大棗一로 構成되어 있으며 현재 쓰이고 있는 東醫寶鑑의 歸脾湯과는 藥物構成內容에서 차이가 있다.

東醫寶鑑(1610, 許浚)의 歸脾湯은 醫學入門(1575, 李梴)⁷⁾에서 引用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醫學入門에서 인용된 歸脾湯은 薛氏醫案(明, 薛己)⁸⁾중의 口齒類要 正體類要(1528, 薛己), 校

註婦人良方(1547, 薛己)에서 나타난다. 口齒類要에서는 歸脾湯을 일명 濟生歸脾湯이라고 하여 歸脾湯의 原出典이 濟生方임을 가리키고 있으며, 正體類要의 歸脾湯과는 藥物用量的 차이가 있다. 校註婦人良方에서는 濟生歸脾湯, 歸脾湯이라고 혼용하면서 婦人科 疾患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출전에 따른 藥물의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口齒類要에서는 當歸 龍眼肉 酸棗仁 遠志 人蔘 黃芪 白朮 白茯苓 (1.0錢) 木香 (0.3錢) 甘草 (0.3錢) 이며, 正體類要에는 當歸 龍眼肉 酸棗仁 遠志 人蔘 黃芪 白朮 白茯苓 (1.0錢) 木香 (0.5錢) 甘草 (0.3錢) 生薑 大棗로 되어 있고,

校註婦人良方에서는 當歸 龍眼肉 酸棗仁 遠志 人蔘 黃芪 白朮 白茯苓 (1.0錢) 木香 (0.5錢) 甘草 (0.5錢) 生薑 大棗이며, 醫學入門, 東醫寶鑑에는 當歸 龍眼肉 酸棗仁 遠志 人蔘 黃芪 白朮 白茯苓神(1.0錢) 木香 (0.5錢) 甘草 (0.3錢) 生薑五 大棗二로 構成되어 있다.

즉, 薛氏醫案의 歸脾湯과 醫學入門, 東醫寶鑑에서의 歸脾湯과는 藥物構成과 用量에서 다소의 상이한 점이 있다.

1) 歸脾湯의 구성藥물의 변화

Table 1. 歸脾湯의 方劑構成藥物에 대한 비교

구분	濟生方		口齒類要		正體類要 校註婦人良方		醫學入門 東醫寶鑑		비고
	構成약물	분량 (兩)	構成약물	분량 (錢)	構成약물	분량 (錢)	構成약물	분량 (錢)	
君	酸棗仁	1.0	酸棗仁 當歸	1.0	酸棗仁 當歸	1.0	酸棗仁 當歸	1.0	人蔘의량과 當歸추가
	黃芪	1.0	黃芪 人蔘	1.0	黃芪 人蔘	1.0	黃芪 人蔘	1.0	
臣	龍眼肉 白朮 茯苓	1.0	龍眼肉 遠志	1.0	龍眼肉 遠志	1.0	龍眼肉 遠志	1.0	遠志추가 茯苓▶茯苓神
	人蔘	0.5	白朮 白茯苓	1.0	白朮 白茯苓	1.0	白朮 白茯苓神	1.0	
佐	木香	0.5	木香	0.3	木香	0.5	木香	0.5	量的 차이
使	甘草	0.25	甘草	0.3	甘草	0.3	甘草	0.3	薑棗의 有無및 量的 차이
	薑五 棗一				薑 棗	0.5	薑五 棗二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歸脾湯의 原出典은 濟生方이며 여기에 當歸, 遠志를 추가 하고 人蔘의 量을 증가한 것이 校註婦人良方の 歸脾湯이고, 醫學入門에서는 茯苓을 茯神으로 바꾼 것이 차이가 있다.

즉, 濟生方에서는 酸棗仁湯을 君으로 하여 安神의 作用을 강조하고, 여기에 補氣효능을 첨가하고 약간의 補血작용을 겸하게 하였다. 이에 대해 薛己는(口齒類要, 正體類要, 校註婦人良方) 君藥으로 當歸를 첨가하여 補血작용을 증가시키고, 人蔘을 증량시켜 補氣 및 安神작용을 늘리고, 遠志를

추가하여 安神益智의 효능을 더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安神, 補氣, 補血의 效能을 두루 갖추게 하여 婦人科의 다양한 疾患에 사용할 수 있도록 處方活用の 폭을 넓혔다. 醫學入門에서는 白茯苓을 白茯神으로 변환시켜 補脾보다는 安神的 효능을 더 강조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出典에 따라 木香, 甘草의 분량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生薑, 大棗의 有無와 分量의 차이가 있다.

2) 歸脾湯의 主治症 비교

主治를 표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2. 歸脾湯의 主治症 비교

문헌	主治症(적응증)	비고
濟生方	思慮過度, 勞傷心脾, 健忘怔忡	
世醫得效方	思慮傷脾, 多健忘, 脾不能統攝心血, 致妄行, 吐血下血	出血症狀 추가됨
口齒類要	思慮傷脾, 血耗昏皺, 及氣郁生瘡, 咽喉不利, 發熱便血, 盜汗晡熱等症	血虛로 인한 生瘡, 發熱, 盜汗
正體類要	跌扑等症, 氣血損傷, 或思慮傷脾, 血虛火動, 寤而不寐, 或心脾作痛, 怠惰嗜臥, 怔忡驚悸, 自汗盜汗, 大便不調, 或血上下妄行, 其功甚捷	不寐, 自汗盜汗, 大便不調
校註婦人良方	脾經失血少寐, 發熱盜汗, 或思慮傷脾, 不能攝血, 以致妄行, 或健忘怔忡, 驚悸不寐, 或心脾傷痛, 嗜臥少食, 或憂思傷脾, 血虛發熱, 或肢體作痛, 大便不調, 或經候不准, 晡熱內熱, 或瘰癧流注, 不能消散潰斂	脾經문제로 인한 諸症狀, 月經, 瘰癧
醫學入門	憂思傷脾, 內熱食少, 體倦或血妄行, 發熱嘔吐, 健忘怔忡, 驚悸少寐, 或心脾作痛, 自汗盜汗, 或肢體腫痛, 大便不調, 或經候不調, 晡熱內熱, 或唇口生瘡, 流注等證	食少와 嘔吐
東醫寶鑑	憂思勞傷心脾, 健忘怔忡	濟生方の 主治만 언급

그 主治를 살펴보면 出典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다음과 같다.

濟生方 歸脾湯 治思慮過度, 勞傷心脾, 健忘怔忡

世醫得效方 歸脾湯 治思慮傷脾, 心多健忘. 爲脾不能統攝心血. 以致妄行. 或吐血下血.

口齒類要 歸脾湯 (一名濟生歸脾湯) 治思慮傷脾, 血耗昏皺, 及氣郁生瘡, 咽喉不利, 發熱便血, 盜汗晡熱等症

正體類要 歸脾湯 治跌扑等症, 氣血損傷, 或思

慮傷脾, 血虛火動, 寤而不寐, 或心脾作痛, 怠惰嗜臥, 怔忡驚悸, 自汗盜汗, 大便不調, 或血上下妄行, 其功甚捷

校註婦人良方 歸脾湯 治脾經失血少寐. 發熱盜汗. 或思慮傷脾. 不能攝血. 以致妄行. 或健忘怔忡. 驚悸不寐. 或心脾傷痛. 嗜臥少食. 或憂思傷脾. 血虛發熱. 或肢體作痛. 大便不調. 或經候不准. 晡熱內熱. 或瘰癧流注. 不能消散潰斂

醫學入門 歸脾湯 治憂思傷脾 內熱食少 體倦或

血妄行 發熱嘔吐 或 健忘怔忡 驚悸少寐 或 心脾作痛 自汗盜汗 或肢體腫痛 大便不調 或經候不調 嘔熱內熱 或脣口生瘡 流注等證

東醫寶鑑 歸脾湯 治憂思勞傷心脾 健忘怔忡

主治를 綜合하여 간략하게 整理해 보면, 病理的原因은 心脾虛弱(憂思勞傷心脾), 血虛發熱, 氣血兩虛이며 主治는 健忘怔忡, 驚悸少寐, 經候不調, 大便不調, 氣血兩虛로 인한 諸般症狀등 이다.

2. 歸脾湯 構成에 관련된 基本方⁹⁻¹⁴⁾

東醫寶鑑에 등재되어 있는 歸脾湯의 構成藥物을 통하여 그 관련 處方을 분석하여 보면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酸棗仁, 人蔘, 白茯苓으로 구성된 '酸棗仁湯', 人蔘, 白朮, 白茯苓, 甘草로 구성된 '四君子湯', 黃芪, 人蔘, 甘草로 구성된 '黃芪

湯'(保元湯), 黃芪, 當歸로 구성된 '當歸補血湯'등이 그 基本 構成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人蔘, 白茯苓, 遠志는 '定志丸'에서 石菖蒲가 去해진 것이며, 人蔘, 白朮, 白茯苓, 甘草, 木香은 全氏異功散에서 陳皮가 去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龍眼肉은 養血安神的 作用을 하며, 生薑과 大棗는 藥의 氣味 및 諸藥을 調和시키는 作用을 한다.

따라서 歸脾湯은 酸棗仁湯, 四君子湯, 黃芪湯, 當歸補血湯, 定志丸類, 聰明湯類, 全氏異功散類등 7개의 基本方이 一部 및 전체가 合方되거나 加味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歸脾湯의 基本構成處方과 이에 관련된 病理

Table 3. 歸脾湯 構成에 관련된 基本方

	構成藥物	분량(錢)	연관處方的 構成
君	酸棗仁 黃芪 人蔘 當歸	1.0	酸棗仁湯(酸棗仁, 人蔘, 白茯苓) - 養心安神 定志丸(人蔘, 白茯苓, 遠志)去石菖蒲 - 安神益智 聰明湯(白茯苓, 遠志)去石菖蒲 - 安神益智
臣	龍眼肉 遠志 白朮 白茯苓	1.0	四君子湯(人蔘, 白朮, 白茯苓, 甘草) - 補氣補脾 全氏異功散(四君子湯合木香)去陳皮 - 補脾理氣
佐	木香	0.5	黃芪湯(保元湯)(黃芪, 人蔘, 甘草) - 大補元氣
使	甘草 生薑五 大棗二	0.3	當歸補血湯(黃芪, 當歸) - 補氣養血 龍眼肉 - 養血安神 生薑 大棗 - 氣味 및 諸藥의 調和

Table 4. 歸脾湯의 基本構成處方과 病理 연관성

	관련 處方	관계 病理	治 法	비 고
歸脾湯	酸棗仁湯 定志丸去石菖蒲 聰明湯去石菖蒲 四君子湯 黃芪湯(保元湯)	心脾虛弱 (憂思勞傷心脾)	補心安神益智	
			補氣健脾	
	四君子湯 黃芪湯 全氏異功散去陳皮	脾氣虛	補氣健脾	理氣효능을 추가
	當歸補血湯	血虛發熱	補氣生血	

歸脾湯을 構成하고 있는 基本處方에 대한 관련 病理의 연관성을 조사해보면 Table 4에서 보는 것과 같다. 따라서 歸脾湯을 구성하는 基本處方을 크게 분류하면 酸棗仁湯, 四君子湯, 當歸補血湯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酸棗仁湯은 酸棗仁, 人蔘, 白茯苓으로 구성된 方劑이며 安神의 基本方劑이다. 여기에 定志丸類를 더하여 補心安神益智의 효능을 강화시켜 心虛로 인하여 발생하는 精神神經系의 諸證候群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四君子湯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허약해진 脾胃의 기능을 정상화 시킴으로써 음식물의 소화흡수 기능을 강화시키고, 이를 통하여 水穀의 精氣를 에너지화 함으로써 全身의인 生理機能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이런 작용을 補氣 혹은 補脾라고 하였듯이 補氣健脾의 基本方이다. 여기에 補氣작용이 현저한 黃芪를 加하고, 理氣藥인 木香을 加함으로써 脾氣虛로 인한 消化器系의 諸證候와 身體虛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證候를 치료할 수 있다.

當歸補血湯은 黃芪, 當歸로 구성된 方劑이며 血虛로 인한 發熱에 쓰이는데 四物湯의 補血기능과는 다르다. 補氣藥인 黃芪를 주로 써서 기능상태를 개선하고 보조적으로 加해진 補血藥의 효과를 얻어내는 것인데 이를 가리켜 '氣는 능히 血을 生한다'고 말하며, 補氣生血의 基本方劑이다. 여기에 養血安神의 龍眼肉을 加하여 補血의 기능을 강화

시킴으로써 婦人科의 諸疾患에 두루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酸棗仁湯, 定志丸類는 心虛를 치료하고, 四君子湯, 黃芪湯, 全氏異功散類는 脾虛를 치료하고, 當歸補血湯은 血虛를 치료한다.

따라서 歸脾湯은 평소에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하여 心脾가 虛弱해져 健忘, 怔忡, 不眠이 나타나면서 消化器系의 제반증후를 동반하며, 女性의 경우는 月經기능에 이상이 발생한 환자에게 활용할 수 있는 方劑임을 알 수 있다.

4. 歸脾湯의 加味法

歸脾湯의 문헌기록에 나타난 加味法을 보면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肝脾鬱怒로 인한 月經不通에는 柴胡, 梔子를 각각 1.0錢을 加하여 解鬱清熱케 하고, 婦人의 생식기가 濕하고 가려우면서 小便 불 때 아프면 柴胡, 梔子, 牡丹皮, 赤芍藥을 加하고, 氣가 鬱滯되어(氣不升降)나타나는 證후에는 香附子를 加하여 치료하고, 정신적자극으로 인한 吐血에는 熟地黃과 乾薑(炒黑)을 加하여 치료하고, 여성에게서 崩漏와 帶下가 오래동안 치료되지 않으면 人蔘, 地榆, 荊芥, 防風, 升麻 등을 加味하여 치료한다. 不眠이 있으면서 血虛가 甚하면 熟地黃을 加味한다. 精神이 맑지 못하면서 健忘이 있으면 酸棗仁, 茯神, 當歸를 두배로 증량하고 安神효능을 가진 柏子仁을 加味하도록 하였다.

Table 5. 歸脾湯의 加味

발현증상	加味藥	作用	비고
肝脾鬱怒 月經不通	柴胡 梔子	解鬱清熱	加味歸脾湯
婦人陰戶濕痒出水痛	柴胡 梔子 牡丹皮 赤芍藥	涼血解鬱消炎	東醫寶鑑
氣不升降	香附子	理氣解鬱	方藥合編
虛火吐血	熟地黃 乾薑炒黑	補血止血	上 同
崩帶日久	人蔘 地榆 荊芥 防風 升麻	補氣升舉止血止帶	上 同
不眠	熟地黃	補血安神	上 同
神不寧而健忘	倍酸棗仁 茯神 當歸 加柏子仁	養血安神	壽世保元 ¹⁵⁾

III. 考 察

歸脾湯은 濟生方에 맨 처음 수록되어 있으나 東醫寶鑑의 歸脾湯과는 다르게 當歸 遠志가 빠져 있으며 白茯神 대신 茯苓을 사용하고 있으며, 처방의 구성약물의 용량에서는 人參의 용량이 동의 보감 1.0錢으로 濟生方の 0.5錢용량보다 증량되어 있어 補血, 安神기능을 보강한 것임도 알 수 있다.

또한 東醫寶鑑에 인용된 歸脾湯은 「醫學入門」에서 인용한 것이며 「口齒類要」, 「正體類要」, 「校註婦人良方」等 과 깊은 문헌적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Table1).

主治症의 변화를 살펴보면 관련된 의서에서는 主治症을 보다 폭 넓게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世醫得效方」에서는 出血증상이 추가되고, 「口齒類要」에서는 血虛로 인한 發熱 盜汗이, 「正體類要」에서는 不寐, 自汗 盜汗, 大便不調 「校註婦人良方」에서는 脾經에 관련된 諸症狀이, 「醫學入門」에서는 嘔吐와 食少, 등이 추가되어 있다. 그러나 「東醫寶鑑」의 주치는 濟生方の 主治를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2).

歸脾湯 구성을 분석해보면 養心安神하는 酸棗仁湯(酸棗仁, 人參, 白茯苓), 安神益智하는 定志丸(人參, 白茯神, 遠志)去石菖蒲, 聰明湯(白茯神, 遠志)去石菖蒲, 補氣補脾하는 四君子湯(人參, 白朮, 白茯苓, 甘草), 補脾理氣하는 全氏異功散(四君子湯合木香)去陳皮, 大補元氣하는 黃芪湯(保元湯)(黃芪, 人參, 甘草), 當補氣養血하는 歸補血湯(黃芪, 當歸)等 의 7개 처방이 함방된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補血, 補氣, 安神, 補脾, 益智 등의 효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Table3).

歸脾湯에 관련된 병리로 살펴보면 心脾虛弱, 脾氣虛, 血虛發熱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와 정서장애로 인한 정신신경장애, 위장기능장애를 포함한 健忘 怔忡, 不眠, 月經不調 환자에게 활용할 수 있는 方劑임을 알 수 있다.

IV. 結 論

1. 歸脾湯의 出典은 濟生方이며, 그 方劑構成이 濟生方에는 當歸, 遠志가 빠져있으며, 口齒類要, 正體類要, 校註婦人良方에서는 白茯神대신 白茯苓으로 되어있으며, 東醫寶鑑에서는 醫學入門의 構成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歸脾湯을 構成하고 있는 基本方은 酸棗仁湯, 四君子湯, 黃芪湯(保元湯), 當歸補血湯, 定志丸類, 聰明湯類, 全氏異功散類 등으로 볼 수 있다.
3. 歸脾湯에 관련된 病理와 處方은 心脾虛弱에 酸棗仁湯, 定志丸類, 四君子湯, 黃芪湯을 脾氣虛에 四君子湯, 黃芪湯, 全氏異功散類를 血虛에는 當歸補血湯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歸脾湯은 心脾虛弱, 氣血兩虛 등의 복합된 病理에 의한 健忘, 怔忡에 活用하는 方劑임을 알 수 있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06년도 원광대학교 교비지원에 의한 것임.

參考文獻

1. 南京中醫學院, 中醫方劑大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2. 嚴用和, 濟生方(中華醫書集成 第八冊),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25
3. 危亦林, 世醫得效方,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335
4. 薛己, 卞廷煥編譯, 完譯校註婦人良方, 대구, 韓林院, 1987, p.649
5. 許浚, 對譯東醫寶鑑, 서울, 法人文化社, 1999, pp.190, 239, 1116

6. 洪元植, 中國醫學士,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7, pp.174, 175, 248, 249
7. 李槲, 醫學入門, 天真, 天真科學技術出版社, 1999, p.1435
8. 薛己, 薛氏醫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p.1224, 1226, 1228, 1234, 1245, 1246, 1252
9. 汪昂, 蔡仁植, 孟華燮共譯, 國譯醫方集解, 서울, 大成文化社, 1998, p.263
10. 申載鏞, 方藥合編解說, 서울, 成輔社, 2000, pp.31, 60
11. 尹用甲, 東醫方劑와 處方解說, 서울, 醫聖堂, 2002, pp.631~638
12. 尹用甲, 新東醫方劑2223, 서울, 鼎談, 2006, p.339
13. 編輯部, 天真處方解說, 서울, 成輔社, 1995, pp.61, 65, 66
14. 黃度淵, 對譯證脈方藥合編, 서울, 南山堂, 2002, pp.137, 139, 195, 247
15. 龔廷賢, 壽世保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p.323, 427, 492, 496, 501, 502, 507, 546
16. 李東垣, 蘭室秘藏(東垣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254
17. 龔廷賢, 萬病回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225
18. 中國中醫研究院中國醫史文獻研究所, 中醫人物辭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88, pp.668, 669
19. 辛民教, 原色臨床本草學, 서울, 南山堂, 1986
20. 林東旭의, 婦人科 疾患에 活用된 歸脾湯에 關한 文獻的 考察, 大韓韓方婦人科學會, 1998
21. 鄭俸弼, 歸脾湯의 煎湯液이 家兔血壓 및 白鼠肝 TBA 値에 미치는 影響, 경희대학교 1978
22. 李東鎮, 歸脾湯煎湯液이 睡眠時間 및 鎮痛作用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實驗的 研究, 경희대학교 1979
23. 柳同烈, 歸脾湯 및 備金散 煎湯液이 實驗動物의 止血作用과 摘出子宮筋에 미치는 影響, 圓光大學校 1987
24. 李俊成, 薛氏醫案에 나타난 歸脾湯의 臨床的 活用に 關한 考察, 大田大學校大學院, 1992
25. 文流模, 歸脾湯의 抗stress 效果에 對한 實驗的 考察, 慶熙大學校 1986
26. 朴恩貞, 歸脾湯과 歸脾湯加味方이 마우스의 過敏反應 및 免疫細胞의 機能에 미치는 影響, 圓光大學校 1990